

국가별 동향



스코틀랜드

닭 케이지 사육 금지 원해



스코틀랜드 정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를 원하고 있다. 에든버러에 본부를 둔 당국은 계획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가금류 업계에 의견을 요청했다. 2034년부터는 케이지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영국은 2012년에 케이지 사육을 금지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88%가 사육에 사용되는 케이지를 잔인하다고 생각하고, 조사 대상자의 77%가 케이지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짐 페어리 농무부 장관은 “우리는 산란계를 가두는 것을 금지하여 정상적인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산란계의 복지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과 시민들의 소비 시 동물 복지의 중요성은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이 금지령은 스코틀랜드가 이 관행을 최초 금지한 영국의 뒤를 잇는 동물 복지 개선에 앞장서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poultry world]



영국

사상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 종료 선언

영국은 WOAH(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영국 전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지역적 자유선언을 발표했다. 영국에서는 현재 가금류나 기타 사육 조류에서 HPAI가 발생하지 않으며 영국에서 HPAI H5로 인한 가금류에 대한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영국가금류협회(British Poultry Council)의 리처드 그리피스 회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2년 반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조류인플루엔자를 겪었고 이제는 조심스럽지만 무역 관계를 다시 수립할 수 있는 국가적 자유를 얻었다고 밝혔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리피스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국가 내 이동이 제한되고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수년에 걸쳐 업계에 수천만 파운드의 비용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는 업계 관계

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poultry world]



케냐

탄자니아와 가금류 무역 분쟁 해결



탄자니아 아루샤에 있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본부에서 열린 이틀간의 회의가 케냐 공화국과 탄자니아 공화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들 사이에는 가금류 제품의 수출에 관한 오랜 갈등이 있었다. 케냐 회의의 공동 의장인 랩슨 완잘라는 연설에서 양국 간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무역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국이 무역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약속은 이 지역의 무역 증가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탄자니아 회의 공동의장인 베네제스 루테즈 말린다도 케냐의 입장에 동의했으며 탄자니아는 모든 무역 관련 기관이 비관세와 같은 무역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ast African Community]



브라질

홍수로 가금류 농장과 공장 중단



악천후로 인해 가축이 죽고 도로가 막혔으며 육류 포장업자들이 브라질 최남단 히우그란지두술주에 있는 약 10개의 가금류 공장의 운영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월요일 ABPA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ABPA는 이들 공장이 도축할 동물 부족과 공장 직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며 폭우와 홍수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중요한 기반시설이 파괴된 후 극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수의사 플라우리 밀리아바카(Flauri Migliavacca)는 카스카(Casca) 마을의 동물들이 강한 해류에 휩쓸려 익사했다고 말했다. 밀리아바카는 대형 정육업자들이 소형 차량으로 임시 비포장도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일부 피해 지역의 농부들에게 사료를 전달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thepigsite] 양계